

# 광조형 방식 3D 프린터 '마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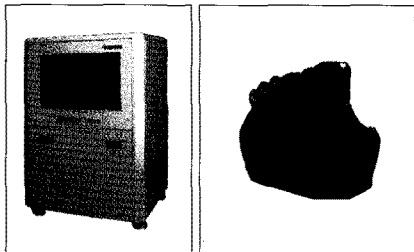
(주)캐리마

## 회사소개

1983년 CK산업으로 시작하여 30여 년간 광학기기 전문회사로 입지를 다져온 캐리마(대표·이병극, www.carima.co.kr)는 국내 최초로 국산필름 사진현상기 개발을 통해 국내시장의 80%를 점유하며 시장을 리드했다. 이후 사진시장의 디지털화에 따른 디지털 컨버터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해외 30여 개국에 수출을 하며 호평을 받아왔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 실물 모형 제작장비 시장에 본격 가세하면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광조형 방식 3D 프린터기인 '마스터(Master)'가 올해부터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수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 국내 산업전시회에 참가한 이병극 사장이 자사 부스 앞에서 조형물을 선보이고 있다.



▶ 캐리마의 광조형기인 '마스터' ▶ 3D 마스터기로 제작한 치아모형

## 제품 특징 및 관련시장 동향

'마스터(Master)'는 신개념 첨단 쾌속 광조형기로, 각종 3D 모델링 데이터를 STL파일로 변환 후 슬라이싱을 거친다. 이후 캐리마가 자체 개발한 액상수지(Resin)를 특수 시트 위에 자동 적층시켜 슬라이싱된 영상 데이터로 원하는 실물 모형을 제작하는 3D 프린터다.

마스터는 설계된 제품의 오차 범위를 최대한으로 축소해 부드러운 곡면과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 섬세한 표현력과 정밀도, 빠르고 쉬운 사용법, 저렴한 장비 가격과 유지비가 특징으로 주얼리, 전자제품, 백색가전, 기계부품, 건축모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마스터는 설계된 제품의 오차 범위를 최대한으로 축소해 부드러운 곡면과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기술을 필두로 데이터를 원하는 시제품으로 조형 가능한 캐리마의 30년 노하우의 기술력이 집결된 제품이다.

조형물 제작속도는 시간당 18-70mm 적층되며, 속도는 조형물에 따라 다르다. 자체 개발한 1/3 가격의 합성수지를 이용해 기기 유지비의 부담을 줄였으며 전자제품, 건축 모형, 캐릭터제품, 의료제품 등 다양한 적용 사례를 보여준다.